

경로당 이용 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서울특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강은미¹, 이영철^{2*}

¹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학생, ²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Users of Senior Citizen Centers: Focus on Senior Citizen Centers in Seoul

Eun-Mi Kang¹, Young-Chul Lee^{2*}

¹Student,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융복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25개구 경로당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최종 448명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만족도는 경로당 이용 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경로당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질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복지만족도,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실존성, 확실성 및 대응성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경로당 이용 노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만족도 증진과 시설확충, 경로당 이용 노인간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마련 및 정책적 논의가 긴요하며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 융복합, 삶의 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 경로당 이용만족도, 서비스 질, 경로당 이용 노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influencing factors of elderly users of senior citizen centers' life satisfaction from an integrative perspective. In order to do so, 25 senior citizen centers located in the city of Seoul were selected as a sample on which a direct survey was conducted. A total of 448 were chosen as the final study subjects. The following are the study results. Firstly, although program satisfaction did no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users of senior citizen centers, senior citizen center user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Secondly, welfare satisfaction and self-worth had a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Thirdly, existentiality, certainty and responsivenes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discussions for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active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self-worth of elderly users by fulfilling leisure welfare satisfaction and achieving facility expansion, as well as vitalizing communication among elderly users.

Key Words : Integration, Life Satisfaction, Program Satisfaction, Senior Citizen Center User Satisfaction, Service Quality, Elderly Users of Senior Citizen Centers

1. 서론

급격한 융복합시대로의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노년층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 · 관

리하며 건강노화를 지원할 노인여가복지 시스템 구축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베이비 부머세대가 고령화 대열에 본격적으로 이동하면서 노인

*Corresponding Author : Eun-Mi Kang(sonata0306@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6,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27,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복지 시설의 수요와 기반여건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고령사회의 길어진 노년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익숙하고 친숙하게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기능 강화 및 통합적 건강돌봄서비스체계 구축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1].

우리민족 고유의 사랑방 문화에서 진화되어 온 서울 3,350여개소 등 전국 6만5천여개소 경로당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중시되고 있다[2]. 더불어 경로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자인 노인 중심의 이용만족도에 대한 폭넓은 실증적 검증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연구도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프로그램만족도, 서비스 질, 여가복지만족도 등의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제까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다수가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에 국한되어 있어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0세 이상, 무학, 독거노인, 건강이 좋은 노인일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 경로당 이용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시 경로당 이용 노인의 욕구 파악이 우선되어 수요자 중심의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을 제기하였다[4]. 노인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의 확충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순회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조사되었다[5].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이용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질은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6,7].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 의하면 경로당은 시설영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리사회의 주거시설 개선 및 현대화가 진행된 것과 발맞춰 경로당 시설에 대한 질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8]. 문화소양, 문화활동, 문화지식 등 문화자본이 심리적 복지감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인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문화자본이 매개효과가 있음이 조사되었다[9].

본 연구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프로그램만족도,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경로당 이용 노인의 프로그램만족도,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질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여가만족도, 복지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노화태도 및 현실충만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경로당 이용 노인의 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인 실존성, 신뢰성, 확신성, 대응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25개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표본으로 하였다. 서울특별시 25개구 소재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라 경로당마다 종목 및 횟수에 차이가 있어 주로 활성화된 구립 또는 중소형 사립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의표집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자기기입방식 또는 문답식으로 실시하였다. 직접조사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1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3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를 제외하고 최종 448부를 활용하였다. 표본추출은 임의표집방법을 적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프로그램만족도 척도

본 척도는 미국 세퍼드센터의 사회복지프로그램 및 일본 문무과학성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최태복 [10]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문항은 총 16문항으로 '경로당의 건강체조, 댄스, 요가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만족함', '경로당의 노래교실, 민요교실 프로그램에 만족함', '경로당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음'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프로그램만족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프로그램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프로그램만족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4미만인 '경로당에서 친구와 수도도 떨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울증이 개선됨' 문항은 삭제하고 최종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만족도의 Cronbach's alpha값은 .907로 매우 높았다.

2.2.2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이용만족도 척도

본 척도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08년 개발한 사회복지시설용 이용자만족척도인 CSI-SW를 고광선(2017)이 수정·보완한 것을 활용하였다. 질문문항은 총 57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요인은 이용만족도와 자아행복감으로 분류되었다. 이용만족도는 다시 여가만족도와 복지만족도로, 자아행복감은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 및 현실충만감으로 하위요인을 세분화하였다. 각 문항 중 역문항은 역변환 처리를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4미만인 문항은 삭제하고 최종 34문항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가만족도(5문항), 복지만족도(7문항), 자아존중감(5문항), 자아실현(5문항),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7문항) 및 현실충만감(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경로당 이용만족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순서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만족도, 복지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 및 현실충만감의 Cronbach's alpha값은 각각 .904, .807, .899, .804, .751, .721로 나타났다.

2.2.3 서비스 질 척도

본 척도는 1992년 Cronin & Taylor가 SERVQUAL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발한 SERVPERF 척도를 고광선(2017)이 수정·보완한 것을 활용하였다. 질문문항은 총 4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요인은 실존성, 신뢰성, 확신성, 대응성으로 분류하였다. 실존성은 경로당의 시설·환경 및 비품의 구비정도, 신뢰성은 경로당에서 약속한 프로그램 제공 이행능력 및 경로당 임원의 리더십 등이며, 확신성은 경로당 운영지원 단체 및 기관과 임원진의 업무수행 믿음정도 등이며, 대응성은 경로당 임원진의 민원 대응정도 등이다.

각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4미만인 문항은 삭제하고 최종 39문항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존성(6문항), 신뢰성(7문항), 확신성(8문항) 및 대응성(1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서비스 질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성, 신뢰성, 확신성 및 대응성의 Cronbach's alpha값은 각각 .780, .701, .870, .951로 나타났다.

2.2.4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척도는 Neugarten, Havinghurst & Tobin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지표를 이용한 한형수[11]의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문항은 총 5문항으로 '내 삶은 대부분의 과정에서 나의 이상에 가까웠음',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가 삶에서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얻어왔음'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삶의 만족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의 Cronbach's alpha값은 .861로 높게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변수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Win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둘째, 주요 변수 간의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데이터의 이상치를 처리하고 결측값은 회귀대체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치 처리는 각 변수들의 지표를 표준하여 절대값이 '3'이상인 값을 가지면 이상치로 간주하여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80명(40.2%), '여자'

268명(59.8%)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76~80세'가 167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86세 이상'은 50명(1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응답자 중 81세 이상이 164명(35.7%)의 분포도를 보여주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48)

Variables	Division	n	%
gender	Male	180	40.2
	Female	268	59.8
age	70 years old or younger	39	8.5
	71-75 years old	90	19.6
	76-80 years old	167	36.3
	81-85 years old	114	24.8
	86 years old or older	50	10.9
Education	≤6	124	28.1
	6< ≤9	133	30.1
	9< ≤12	140	31.7
	13 ≤	45	10.2
Religion	Yes	297	67.5
	No	143	32.5
Health	Not healthy	77	17.0
	Moderate	149	33.0
	Healthy	226	50.0
Living arrangement	Alone	118	26.6
	Couple(Married)	240	54.2
	Others(Including living with children)	85	19.2
Income	≤30	170	40.4
	30< ≤50	71	16.9
	50< ≤100	81	19.2
	100< ≤150	61	14.5
	151 ≤	38	9.0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이 140명(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 45명(10.2%)이 제일 적게 분포하고 있다. 종교는 '있다' 297명(67.5%)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없음'이 143명(32.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동거형태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기타(자녀와 함께 동거 포함)'인 경우 85명(19.2%)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118명(26.6%)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국가적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월평균 수입의 경우는 '30만원 이하'가 170명(40.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51만원~100만원 이하'는 81명(19.2%), '31만원~50만원 이하' 경우가 71명(16.9%), '101만원~150만원 이하' 경우가 61명(14.5%), '151만원 이상'의 경우가 38명(9.0%)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득원의 경우는 '연금'이 138명(34.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자녀'의 경우 126명(31.8%), '저축, 재산소득' 경우가 65명(16.4%), '근로'의 경우가 37명(9.3%), '기타'의 경우가 30명(7.6%)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분석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인식하는 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여가만족도와 복지만족도로 세분화 하였다. 여가만족도의 평균값은 3.863(표준편차=.708), 복지만족도의 평균값은 3.922(표준편차=.620)로 대푯값의 하나인 중앙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행복감은 하위요인을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 및 현실충만감으로 세분화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937(표준편차=.642), 자아실현의 평균값은 3.405(표준편차=.726),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의 평균값은 3.602(표준편차=.689), 현실충만감은 평균값이 3.658(표준편차=.738)로 대푯값의 하나인 중앙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친숙하고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을 이용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충족감을 느끼며, 경로당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한다고 풀이된다.

서비스 질은 하위요인을 실존성, 확실성, 대응성 및 신뢰성으로 분류하였다. Table 2에서 실존성의 평균값은 2.745(표준편차=.725), 확실성의 평균값은 3.781(표준편차=.565), 대응성의 평균값은 3.724(표준편차=.625), 신뢰성의 평균값은 3.674(표준편차=.629)로 나타났다. 서비스질 전체의 평균값은 3.480(표준편차=.399)을 보여주고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은 3.317(표준편차=.733)로 분석되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은 서비스 질의 하위요인 가운데 시설 및 장비, 환경 등의 실존성에 대해 3.0이하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여줬으나 서비스질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448)

variables		Min.	Max.	Mean	S.D.
Program satisfaction		1.00	5.00	3.305	.715
Satisfaction in leisure welfare in senior	User satisfaction	1.00	5.00	3.863	.708
	Welfare satisfaction	1.43	5.00	3.922	.620

citizen center	Personal happiness	Self-worth	1.40	5.00	3.937	.642
		Self-realization	1.20	5.00	3.405	.726
		Attitude towards aging	1.00	5.00	3.602	.689
		Abundance in reality	1.20	5.00	3.658	.738
Leisure welfare satisfaction in senior citizen center			1.29	5.00	3.892	.595
Service quality		Existentiality	1.00	5.00	2.745	.725
		Certainty	1.00	5.00	3.781	.565
		Responsiveness	1.00	5.00	3.724	.625
		Reliability	1.00	5.00	3.674	.629
Total service quality			2.00	4.75	3.480	.399
Life satisfaction			1.40	5.00	3.317	.733

3.3 주요 변수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여가만족도($r=.505, p<.01$), 자아실현($r=.668, p<.01$) 및 확신성($r=.508, p<.01$)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복지만족도($r=.373, p<.01$), 자아존중감($r=.325, p<.01$), 현실충만감($r=.174, p<.01$), 대응성($r=.456, p<.01$), 삶의 만족도($r=.283,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r=-.122, p<.01$)은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여가만족도는 복지만족도($r=.604, p<.01$)와 자아존중감($r=.604, p<.01$), 자아실현($r=.588, p<.01$), 확신성($r=.555, p<.01$)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응성($r=.453, p<.01$), 실존성($r=.128, p<.01$) 현실충만감($r=.173, p<.01$) 및 삶의 만족도($r=.388,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함을 볼 수 있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복지만족도($r=.391, p<.01$), 자아존중감($r=.495, p<.01$), 자아실현($r=.344, p<.01$), 실존성($r=.184, p<.01$), 확신성($r=.412, p<.01$) 및 신뢰성($r=.410,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함을 볼 수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5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1												
②	.505**	1											
③	.373**	.604**	1										
④	.325**	.663**	.541**	1									
⑤	.668**	.588**	.527**	.390**	1								
⑥	-.122**	.023	.158**	.115*	-.085	1							
⑦	.174**	.173**	.282**	.158**	.122**	-.059	1						
⑧	.235**	.128*	.098*	.073	.264**	-.282**	-.117*	1					
⑨	.508**	.555**	.617**	.493**	.511**	.106	.251**	.268**	1				
⑩	.456**	.453**	.596**	.423**	.481**	.137**	.228**	.212**	.734**	1			
⑪	-.085	-.014	.071	.038	-.095*	.463**	-.246**	-.045	.021	.022	1		
⑫	.283**	.388**	.391**	.495**	.344**	.051	.085	.184**	.412**	.410**	.041	1	

* $p<.05$, ** $p<.01$, ① Program satisfaction, ② Leisure satisfaction, ③ Welfare satisfaction, ④ Self-worth, ⑤ Self-realization, ⑥ Attitude towards aging, ⑦ Abundance in reality, ⑧ Existentiality, ⑨ Certainty, ⑩ Responsiveness, ⑪ Reliability, ⑫ Life satisfaction

3.4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성별, 동거형태, 건강상태, 월평균수입), 프로그램만족도, 경로당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질의 변수를 함께 투입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통제변수 설정은 심은경(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성별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남성회원이 여성회원보다 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eta=.097, t=2.106, p<.05$). 회원들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5, t=3.304, p<.01$).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eta=.222, t=4.933, p<.001$).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4.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B	S.E.	β	t	Tolerance limit
Sex	.145*	.069	.097	2.106	.818
Living arrangement 1	-.089	.094	-.054	-.949	.537
Living arrangement 2	-.226*	.087	-.153	-2.585	.496
Physical condition	.144**	.044	.145	3.304	.899
Average monthly income	.121***	.025	.222	4.933	.854
Program satisfaction	.024	.050	.024	.486	.717
Satisfaction in using senior citizen center	.414***	.064	.339	6.507	.637
Service quality	.371***	.095	.199	3.914	.672
F	24.312**				
R ²	.336				
adjusted R ²	.322				
Durbin-Watson	1.774				

Note) *p<0.05, **p<0.01, ***p<.001, Sex(M:1, F:0), Living arrangement 1(Alone:1, Married/Other: 0), Living arrangement2(Married:1,Alone/Other: 0)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프로그램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4, t=.486, p>.05$). 반면에 경로당이용만족도($\beta=.339, t=6.507, p<.001$)와 서비스 질($\beta=.199, t=3.914, p<.001$)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로당이용만족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서비스질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독립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32.2%($F=24.312, p<.001$)로 설명하고 있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발생 여부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의 값은 0.1보다 크게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3.4.1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로당 이용 노인의 경로당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Table 5. Analysis of the Effects of Leisure Welfare Satisfaction's Sub Factors in Senior Citizen Center Users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B	S.E.	β	t	Tolerance limit
Sex	.159'	.068	.106	2.350	.800
Living arrangement 1	-.075	.091	-.045	-.825	.534
Living arrangement 2	-.214'	.085	-.145	-2.521	.490
Physical condition	.159'''	.043	.159	3.711	.878
Average monthly income	.122'''	.024	.224	5.145	.852
Leisure satisfaction	.017	.067	.017	.261	.385
Welfare satisfaction	.173'	.068	.147	2.539	.486
Self-worth	.432'''	.064	.378	6.696	.508
Self-realization	.100	.054	.101	1.852	.540
Attitude towards aging	-.040	.045	-.039	-.903	.870
Abundance in reality	-.047	.043	-.047	-1.103	.895
F	21.552'''				
R ²	.384				
adjusted R ²	.366				
Durbin-Watson	1.775				

Note) *p<0.05, **p<0.01, ***p<.001, Sex(M:1, F:0), Living arrangement 1(Alone:1, Married/Other: 0), Living arrangement2(Married:1, Alone/Other: 0)

이를 위해 통제변수(성별, 동거형태, 건강상태, 월평균 수입), 경로당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여가만족도, 복지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노화에 대한 마음 및 현실충만감의 변수를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성별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남성회원이 여성회원보다 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eta=.106, t=2.350, p<.05$). 회원들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9, t=3.711, p<.001$).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eta=.224, t=5.145, p<.001$).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복지만족도($\beta=.147, t=2.539, p<.05$) 및 자아존중감($\beta=.378, t=6.696, p<.001$)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는 증진된다고 판단된다. 독립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36.6%($F=21.552, p<.001$)로 설명하고 있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발생 여부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의 값은 0.1보다 크게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3.4.2 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로당의 서비스 질의 하위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제변수(성별, 동거형태, 건강상태, 월평균수입), 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인 실존성, 확신성, 대응성, 신뢰성의 변수를 함께 투입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성별($\beta=.028, t=.587, p>.05$)과 동거형태($\beta=-.049, t=-.828, p>.05$)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의 주관적인 건강상태($\beta=.140, t=3.075, p<.01$)와 월평균 수입($\beta=.219, t=4.678, p<.001$)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원들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실존성($\beta=.103, t=2.280, p<.05$), 확신성($\beta=.204, t=3.223, p<.01$) 및 대응성($\beta=.221, t=3.539, p<.001$)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로당의 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인 실존성, 확신성 및 대응성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1, t=-.251, p>.05$). 독립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27.1%($F=17.188, p<.001$)로 설명하고 있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발생 여부를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의 값은 0.1보다 크게 나타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Table 6.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s Sub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B	S.E.	β	t	Tolerance limit
Sex	.042	.072	.028	.587	.806
Living arrangement 1	-.081	.098	-.049	-.828	.530
Living arrangement 2	-.215*	.091	-.145	-2.358	.492
Physical condition	.140**	.045	.140	3.075	.893
Average monthly income	.119***	.025	.219	4.678	.850
Existentiality	.102*	.045	.103	2.280	.912
Certainty	.268**	.083	.204	3.223	.462
Responsiveness	.262***	.074	.221	3.539	.475
Reliability	-.013	.051	-.011	-.251	.950
F			17.188**		
R ²			.288		
Edited R ²			.271		
Durbin-Watson			1.741		

Note) * $p<.05$, ** $p<.01$, *** $p<.001$, Sex(M:1, F:0), Living arrangement 1(Alone:1, Married/Other: 0), Living arrangement 2(Married:1, Alone/Other: 0)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질, 이용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통제변수인 성별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남성회원이 여성회원보다 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원들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통제변수인 성별, 건강상태, 월수입 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심은경(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회원이 여성회원보다 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배경은 경로당 이용 노인의 남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경로당 이용 남성 노인이 자율적 운영체제의 회장, 총무 등 임원진으로 대거 참여하여 운영진반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등의 만족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프로그램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로당이용만족도와 서비스 질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단일요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심리적 복지감을 검증하였으나[6-11],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질, 이용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프로그램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형석(2015)의 선행연구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같이 프로그램 만족도의 영향이 선행연구와 상이하게 나타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이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인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으로 공급자 편의로 지속적인 제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욕구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로당 이용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복지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는 증진된다고 판단된다.

셋째, 경로당 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인 실존성, 확신성 및 대응성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순(2013)의 연구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높을수록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2]

이상에서 살펴본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경로당여가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당의 서비스 질을 구성하는 경로당 시설·환경, 대한노인회 및 자치구 관련부서의 지원정도, 신속한 민원해결정도 등이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로당 임원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경로당 52%가 면적이 99㎡ 미만[13]으로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설기준 규정 개정 및 소형 경로당과 대형 경로당의 기능 차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융복합시대의 신노년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경로당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로당 운영방식과 활동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경로당 이용 노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개인적 삶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경로당으로 자리매김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의 경로당은 사랑방 형태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베이비부머 세대 등 신노년들의 경로당 진입을 위해서는 미국의 시니어 센터와 유사한 기능성 동아리 형태의 경로당 이원화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1-13]. 더불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평가를 통한 운영비 차등지원 등의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이 실리고 있다 [14-17].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선행연구가 경로당의 실상 등 현상적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있으나 구체적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각 변인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척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둘째, 경로당 프로그램에 있어서 설문대상 경로당마다 프로그램 종류 및 실행개수가 달라 조사의 한계로 작용하였으며, 25개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여 층화적으로 표본추출하지 못한 점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B. H. IM. (2018). *The Elderly Find Self-Generated Solutions in an Aging Society*. JOONGDO ILBO(Online). <http://www.joongdo.co.kr>
- [2] Seoul Metropolitan Federation of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2018). *The Report on Elderly Users of Senior Citizen Centers*. Seoul.
- [3] E. K. Sim. (2016).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level by senior citizen's satisfaction level on different types of senior citizen center leisure programs*. Master's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 [4] J. J. Bae. (2011). *A study and improvement plan for elderly leisure programunity*.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5] I. S. Pak. (2005).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program at welfare center for senior on successful aging*.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6] K. S. Ko.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elderly people's satisfaction with using senior citizen centers on their life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DONG-BANG University, Seoul.
- [7] J. L. Han. (2017). *The Nee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centers-Focused on dangjin city*.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Chungnam.
- [8] H. B. Lee, S. C Lee & J. H. Lim. (2005). *The review of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39(3), 137-158.
- [9] H. S. Seo. (2016).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cultural welfare program for the elderly on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capital*. Doctoral dissertation.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Seoul,
- [10] T. B. Choi. (2011). *A study of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education programs for elders*.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Graduate Universit, Dae-Jeon.
- [11] H. S. Han. (2002). *A study on urban elderly persons for the life satisfaction in korea societ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Graduate University, Seoul,
- [12] S. S. Lee. (2013). *Influences of service quality on users' satisfaction in senior citizen centers*. Doctoral dissertation, KANGNAM University. Seoul.
- [13]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2016). *The report on Senior Citizen Centers*. Seoul.
- [14] K H Lee. (2016). *Research on Senior Citizen Center Vitalization Methods and Ideal Transformation Models*. (pp. 83-103). Seoul: KSW.
- [15] M. H. Peon. (2017). *The need and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using elderly centers -focused on Dangjin City*.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Chungcheognam-do.

- [16] K. S. KO & O. C. Lee. (2017).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User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 Cent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9), 473-481
- [17] S. B. Kang. (2011). *A study on improving satisfaction level of using elder's facility -centered on incheon city.* Master's thesis, 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Seoul.

강 은 미(Kang, Eun-Mi)

[정회원]



- 198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생활 미술학교(학사)
- 1986년 2월 :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미술학(석사)
- 2013년 7 월 : 한국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사)

- 2016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효복지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복지, 노인, 여성, 장애
- E-Mail : sonata0306@hanmail.net

이 영 철(Lee, Young-Chul)

[정회원]



- 1996년 6월 : 북경대학교 대학원 사학 (석사)
- 2000년 6월 : 북경대학교 대학원 사학 (박사)
- 2013년 7월 : 한국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사)

- 2010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 콘텐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예술, 사회복지, 노인, 경로당
- E-Mail : wdiyc@hanmail.net